

지역 소식통

정읍시, 내장산 단풍 연계 농뚜레일 투어 신청접수

정읍시가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내장산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가져와 행 프로그램 '농뚜레일'을 운영한다.

'농뚜레일'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논 두렁, 두레, 레일(rail) 등 농촌과 철도가 연상되는 단어를 조합해 '농촌과 철도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지역의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가을의 아름다움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내장산 관광과, 알뜰에 보습제 만들기, 정읍9경 중 하나인 삼화차거리 관광 등 오감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여행 코스를 구성했다.

신청은 넷츠코테일'에서 사이트에서 11월 17일까지 할 수 있으며, 가격은 용산역 출발 기준 6만 33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철도 접근성이 좋은 정읍의 이점을 활용해 내장산과 농촌체험을 연계한 기차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혈액수급 위한 헌혈추진협의회 개최

정읍시는 지역내 민·관·군 헌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혈액확보를 위해 1일 헌혈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읍시, 정읍시의회, 전북혈액원, 정읍아산병원, 정읍교육지원청, 정읍경찰서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단체별 헌혈 장려 방안, 상반기 헌혈추진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성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헌혈추진협의회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참여기관별 주요 역할을 인지해 헌혈 수급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이상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헌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9월까지 2489명의 시민이 헌혈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럼피스킨병·국가예산 확보 집중

심덕섭 고창군수, 11월 중 출입기자 간담회... 백신접종 방역·기업유치 성과 등 설명

심덕섭 고창군수가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와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심덕섭 군수는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2개월여 남은 올해 업무계획과 근간의 기업유치 성과 및 제50회 모양성제 성공 등을 설명했다.

심 군수는 "최근 고창관내 럼피스킨병 확산이 우려스럽다"며 "축협과 수의사회 등 민관이 협력해 신속한 백신접종과 휴업근중 방역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 군수는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 향후 계획도 밝혔다. 심 군수는 "지역 정치권과 도 행정력이 새만금 SOC복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도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고창군은 '세계자연유산 고창 지역센터 건립사업' 등의 국비 반영



을 건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심 군수는 3천여원의 삼성 전자 투자유치와 21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제50회 모양성제의 후일담을 전했다.

심덕섭 군수는 "삼성 유치 성공을 계기로 기업투자 시장에서 고창군의 품값이 오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창에서 성공할 기

업을 모시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모양성제의 가장 큰 성과는 일회용품, 바가지 요금, 안전사고가 없는 3無 축제로 정착시켰다는 점이다"며 "가을 단풍시즌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고창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 구역, 60년 만에 해제 결정

국무회의서 개정 의결... 주민 숙원 해소

지난 10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수산 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의결됨에 따라 부안지역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 사항이던 '포획·채취 금지구역'이 60년만에 드디어 해제 결정이 났다.

포획·채취 금지구역은 1964년부터 막연히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 성어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행위가 금지되어 이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지역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는데 문제는 이 곳을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해양수산부에서도 포획·채취를 금지한 정확한 이유나 근거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푸릇한 이유나 근거없이 1964년부터 막연히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수많은 어업인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되고 있음에도 해제가 되지 않고 있어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7월 22일 진영 행정

안전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조업금지 구역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 조속한 해제를 촉구함으로써 해양수산부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냈고 2022년까지 포획·채취 금지구역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지구역 전면 해제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권익현 군수는 "민·관·지역정치권이 합심하여 일구어 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과거의 불합리한 규제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편의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동학혁명기념공원·'불멸, 바람길', 로컬 100 선정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및 '불멸, 바람길(전봉준장군과 동학농민군상)'이 로컬 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됐다.

로컬 100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문화 매력을 발굴·육성·확산하기 위해 지역명소, 콘텐츠, 명인 등 가운데 100가지를 선정해 2년간(2023~2024)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및 '불멸, 바람길'은 지역 문화유산 부문에 선정됐다.



1894년 5월 11일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과 최초로 싸워 승리한 역사의 현장인 황토현전적지 부지에 건립된 기념공원에는 이를 기억하기 위한 박물관, 추모관 기념물 등이 설치됐다.

이와 함께 고부농민봉기를 시작으로 동학농민군의 행렬 이미지를 부조·부조·환조의 가법을 활용해 제작한 '불멸, 바람길'이 건립돼 있다. 이 기념물들은 매년 5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혁명의 도시 정읍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 또한 동학농민군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 5월 11일(황토현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은 운곡람사르습지가 전북도 주관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시·군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운곡습지, 6년 연속 최우수'

고창군, 전북도 주관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시·군평가서

고창군은 운곡람사르습지가 전북도 주관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시·군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창군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며 명실상부 생태관광지 대표 지역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8월 21일부터 3일간 도내 12개 시군 생태관광지를 대상으로 자원우수성, 시장성, 주제성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에서 실시됐다.

올해는 고창운곡람사르습지와 장수 락봉습지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내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비 12억원과 인센티브 5천만원 등 각각 추가로 지원 받게 됐다.

고창군은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 주민이 참여한 고창군생태관광주민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토요장터, 생태발상, 습지생태교육, 마을합머니해 실시, 반딧불이 여행 등 다채로운 생

태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관광지 홍보 및 주민 소득증수에 힘써왔다.

또한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탐방로 정비, 생태개울복원, 생태공원 및 생태놀이터 조성, 생태마을 조성 등 생태관광지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24년에는 운곡람사르습지센터 건립 및 운곡습지 국가생태탐방로(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운곡습지 탐방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운곡습지가 6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한 것은 운곡습지의 뛰어난 생태자원뿐만 아니라 고창군과 지역주민이 함께 오랜 시간 협력하고 노력한 덕분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운곡습지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주요 간선도로 아스콘포장 정비 추진

정읍시는 노면 상태가 불량한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아스콘 포장 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는 올해 11개 노선, 7.1km의 주요 간선 도로포장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총 18억원을 확보, 시내권 4개소에 6억원, 시외권 6개소에 11억원, 지역 내 전 지역 맨홀 단차 공사에 1억원을 투입했다.

시내권 사업대상은 △하북동 서부산 업도로 850m △수성동 주공3차 200m △달하다리~교동공원 450m △내장산 단풍생태공원~회룡마을 100m 등이 다.

시외권은 △신대인읍 터미널 220m △갑곡면 서남권 추모공원 인근 구 국도1호선 1400m △소성면 군도5호선 400m △임암면 군도 27호선 150m △북면 회전교차로~고모네장터 1600m △소성면 구 국도22호선 815m 등이 다.

이와 함께 맨홀 단차로 인한 차량 운행 불편 해소를 위해 97개소 정비를 완료했다.

시는 상반기에 시내권 3개소와 시외권 4개소 공사를 완료했고, 11월까지 시내권 1개소, 시외권 2개소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